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WorldCat을 중심으로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the WorldCat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I. 머리말	지레코드의 분포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서지레코드의 매체별 분포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서지레코드의 언어별 분포
II. 연구의 배경	3. 서지레코드의 장르별 분포
1. 일반적 배경	IV. WorldCat 서지레코드의 사례
2. 선행 연구	IV. 맺음말
III.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서	

초 록

이 연구는 국제적 규모의 종합목록인 WorldCat을 전 세계 도서관에서 특정한 주제 관련 지식자원 분포 현황의 분석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Korea, Korean, Japan,과 Japanese라는 네 개의 주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한 서지레코드를 매체, 장르, 언어 패킷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 관련 지식자원의 분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전 세계 도서관에 한국 관련 지식자원의 소장규모는 일본 관련 자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특히 청소년 대상 자료는 규모 및 매체, 언어, 장르 등 특정 면에서 일본 관련 자료보다 제한적이며 다양성이 적었다. 또한 두 건의 서지레코드 사례를 검토하여 이용자 서평 등의 내용이 관련 지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추론하였다.

키워드: WorldCat, 종합목록, 차세대 도서관 목록, 발견 인터페이스, 지식 확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WorldCat, an International Union Catalog operated by OCLC as a tool for analyzing the trend of knowledge distribution in libra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study, four subject keywords, that is, Korea, Korean, Japan, and Japanese, were used to search materials related to Korea and Japan, and four facets, including medium, genre, language, and user level, were used to categorize search results from the WorldCat.

The result shows that information resources related to Korea held by libraries around the world are only a little more than a third of Japan-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Especially Korea-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for juveniles are less in numbers and lack in diversity in languages, media and genres, when compared with Japan-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Also an examination of two bibliographic records demonstrates that viewpoints expressed in user contributed reviews might affect diffusion of knowledge on certain subjects in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Keywords: WorldCat, Union catalog,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Discovery interface, Knowledge diffusion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12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2년 2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3월 23일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정보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 세계 대부분 도서관의 소장 자원에 대한 온라인 목록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원문제공과 상호대차 등의 방법을 통한 자원 공유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주로 사서들이 업무용으로 서지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종합목록이 이제는 웹 상에서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OCLC WorldCat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종합목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전 세계 도서관에 산재한 정보자원을 한 곳에서 동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로 소재를 파악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상호대차 신청하여 자원 자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WorldCat을 분석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활용가능한 지식자원의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말하자면 천연자원의 분포지도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구리, 석유나 아연과 같은 특정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WorldCat과 같은 국제적 종합목록을 통해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지식자원의 세계적 분포 현황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지식의 잠재적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도서관 장서는 이용자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매우 선별된 자료들로 구성되며, 이용자들은 목록이라는 매우 정교하고 정밀하게 조직된 정보검색과 접근도구를 사용하여 장서에 대한 정보 및 주제를 다루는 자료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도서관 목록은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장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자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주제나 이름 등으로 관련된 다른 자료들에 관한 정보도 훑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우연한 발견(serendipitous discovery)”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온라인 목록에서 주제, 이름 등으로 링크된 서지레코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계됨에 따라, 특정한 주제나 대상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나 관심으로 시발된 자료 검색이 수많은 다른 자료에 대한 브라우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의 지식은 확대될 수가 있다.

둘째, WorldCat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국제적 종합목록에서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특정한 주제 관련 지식의 확산 현황 및 이용자 요구와 관심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의 보편화로 인하여 이용자가 전 세계 어떤 도서관에든 상호대차를 신청하여 자원 공유를 할 수 있으므로, WorldCat과 같은 종합목록은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게 개방된 잠재적 지식자원에 대한 접근도구가 될 수 있으며, 지식 확산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WorldCat을 특정한 주제 관련 지식자원 분포 현황의 분석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주제인 '한국'과 '일본' 관련 지식자원의 분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WorldCat 서지레코드의 계량분석 및 내용분석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1) WorldCat를 국명인 Korea와 Japan, 그리고 각 나라 사람을 나타내거나 형용사형으로 사용되는 Korean과 Japanese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 키워드로 검색한다.
- (2) 검색된 서지레코드들을 WorldCat 자체가 제공하는 주제, 발행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대상이용자(일반, 청소년), 장르(소설, 비소설, 전기), 매체(책, 비도서) 등의 패킷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계량분석 한다.
- (3) 각 속성에 따른 서지레코드 분포 현황 및 특성을 서술하고, 현재 전 세계 도서관 장서라는 형태로 나타난 한국과 일본 관련 지식 확산의 현황을 기술한다.
- (4) 서지레코드의 사례를 분석하여 잠재적 지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II. 연구의 배경

1. 일반적 배경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인 WorldCat은 1967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범한 대학도서관 기반 서지유틸리티인 OCLC의 온라인 종합목록으로서 1971년 구축되었다. WorldCat은 2011년 11월 현재 전 세계 170여 국가 72,000여 개 도서관 소장 자료 250,021,271건의 서지레코드와 소장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매 10초마다 한 건씩 새로운 서지레코드가 추가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WorldCat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캐나다국립도서관 아카이브(Library and Archives Canada),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일본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네덜란드국립도서관(Koninklijke Bibliotheek) 등 40여 개 주요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국가의 국립도서관과 파트너가 되어 해당 국가의 국가서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WorldCat은 개별 도서관만이 아니라 복수의 국가대표 도서관 수준의 소장자원까지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적 도서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¹⁾

이 연구에서 이러한 WorldCat을 통해 주제 관련 지식 분포 현황의 분석 및 잠재적 지식 확산의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최근 “차세대 도서관 목록(Next Generation Catalog)”²⁾ 혹은 브리딩이 명명한 것처럼 “발견 인터페이스(discovery interface)”³⁾ 라고 불리는 목록의 도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OCLC은 2007년부터 WorldCat Local이라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을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1월 현재 세계 전역에서 141개 도서관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WorldCat Local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1,605개 도서관이 사용하는 AquaBrowser Library, 313개 도서관이 사용하는 Ex Libris의 Primo, 516개 도서관이 사용하는 Enterprise 등보다 시장점유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⁴⁾ 그러나 WorldCat Local은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어떤 도서관의 목록에서든 직접 WorldCat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WorldCat의 구성원인 세계 도서관의 장서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면 자원 공유까지 바로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차세대 목록의 기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확장된 콘텐츠, 패킷 네비게이션, 키워드 검색, 검색결과의 적합성 순위화, “Did you mean?”과 같은 유형의 철자 오류 및 검색 수정 기능, 자료 추천, 이용자 참여,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혹은 Rich Site Summary) 등이며,⁵⁾ 많은 온라인 목록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⁶⁾ 이러한 기능들 가운데 검색결과의 분류 혹은 제한에 사용되는 패킷, 이용자가 추가한 태그 혹은 서평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 덕분에 목록에서 서지레코드 및 그것이 기술하고 있는 자료들의 다양한 특성별 분포 현황 및 이용자 요구, 관심, 의견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1) OCLC 홈페이지, *WorldCat Facts and Statistics*, <<http://www.oclc.org/us/en/worldcat/statistics/default.htm>> ; *WorldCat: A Global Catalog*, <<http://www.oclc.org/us/en/worldcat/catalog/default.htm>>; *Brief history of OCLC Activities with National Libraries Outside the U.S.*, <<http://www.oclc.org/us/en/worldcat/catalog/national/timeline/default.htm>> [cited 2011. 12. 3]

2) Marshall Breeding,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s,”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43, No.4(July/August 2007), pp.1-44.

3) Marshall Breeding, *State of the Art in Library Discovery 2010, Computers in Libraries*, Vol.31, No.1(January/February 2010), pp.31-35.

4) Library Technology Guides, “Discovery Layer Interfaces,” <<http://www.librarytechnology.org/discovery.pl>> [cited 2012. 1. 30]

5) Tito Sierra, Joseph Ryan, and Markus Wust, “Beyond OPAC 2.0: Library Catalog as Versatile Discovery Platform,” *Code4Lib Journal*, Issue 1 (2007. 12. 17), <<http://journal.code4lib.org/articles/24>> [cited 2009. 12. 31]

6) OCLC, *Online Catalogs: What Users and Librarians Want: An OCLC Report*, 2009, <<http://www.oclc.org/reports/onlinecatalogs/fullreport.pdf>> [cited 2009. 12. 10]

2. 선행 연구

지난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도서관 목록 관련 논문은 모두 36편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목록규칙과 서지기술(記述), 인코딩 및 콘텐츠 표준, 검색과 접근 기능, 인터페이스 등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이 연구와 같이 도서관 목록이 지식 확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은 김정현의 연구⁷⁾가 유일하다.

김정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의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한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가장 신뢰성 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보는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라는 전제 하에 미국, 영국, 독일 등 13개 국가도서관 목록에서 한국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과 레코드의 소장상황,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관심이 높은 일부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이들의 세부 항목별 주제 분포에서 대체로 ‘역사’와 ‘경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편중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연구는 사실상 주제명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지레코드 상 주제명으로 표현된 각 도서관의 장서 상황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김정현의 연구와 매우 근접한 맥락에서 진행된다. 이 연구는 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장서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선별된 자료로 구성되며, 따라서 도서관 목록은 그 주제 관련 지식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러나 김정현이 국가도서관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도서관의 목록을 일일이 살펴본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세계 도서관 종합목록으로서 WorldCat이 가진 통합적 주제 관련 정보원 및 주제 확산 도구로서의 가치에 주목한다는 방법론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한편 차세대 도서관 목록 혹은 발견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으나 이들은 대체로 시스템 소개나 개별 기능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경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선 아직 생소하였던 차세대 도서관 목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⁸⁾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AquaBrowser⁹⁾와 WorldCat Local¹⁰⁾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윤정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종합목록인 벨빌 시스템

7) 김정현,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 (2011. 9), pp.141-162.

8) 심 경, “차세대 도서관 목록.” 도서관문화, 제49권, 제9호(2008), pp.22-28.

9) 심 경,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AquaBrowser.” 도서관문화, 제49권, 제10호(2008), pp.48-56.

10) 심 경,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2): WorldCat Local.” 도서관문화, 제49권, 제11호(2008), pp.54-61.

을 위한 '차세대 멜빌 프로젝트'에 사용된 WorldCat Local과 스탠포드 대학도서관 목록에 사용된 Search Works의 사례를 분석하였다.¹¹⁾ 유영준은 국내외 11개 도서관이 도입한 차세대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패킷 네비게이션이라는 구체적 기능의 특성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¹²⁾

이 연구는 이러한 발견 인터페이스들의 기능적 특성 자체보다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목록이 수행하는 검색도구 이상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III.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의 분포

여기에서는 WorldCat에 수록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주제키워드를 가진 서지레코드를 매체별, 언어별 및 장르별로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서, 전체 자료의 현황과 더불어 청소년 대상 자료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포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8일부터 12일 사이 국명을 나타내는 Korea과 Japan, 그리고 각 나라 사람을 나타내거나 형용사형으로 사용되는 Korean과 Japanese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주제 키워드를 사용하여 WorldCat을 검색하였다. 그리고는 각 주제 키워드로 검색된 서지레코드들을 WorldCat 자체가 제공하는 매체, 언어, 장르 패킷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범주화한 결과를 도표화하였다.

여기에서 Korea를 포함하는 주제 키워드는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이하 LCSH라 부름)의 Korea, Korea--Antiquities--Bibliography, Korea-Archeology, Korea--Civilization--20th century--Pictorial works, Tok Island (Korea) 등과 같은 주제표목들이 해당되며, Korean을 포함하는 주제 키워드는 LCSH의 Korean American children, Korean character sets (Data processing)--Databases, Korean Demilitarized Zone (Korea)와 같은 주제표목들이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Japan을 포함하는 주제 키워드는 LCSH의 Japan Antiquities, Japan--Armed Forces, Japan Association for Technical Information, Tokachi-shichō (Japan) 등과 같은 주제표목들이 해당되며, Japanese를 포함하는 주제 키워드는 Japanese Americans--Cultural assimilation, Japanese newspapers --Extra editions 등과 같은 주제표목들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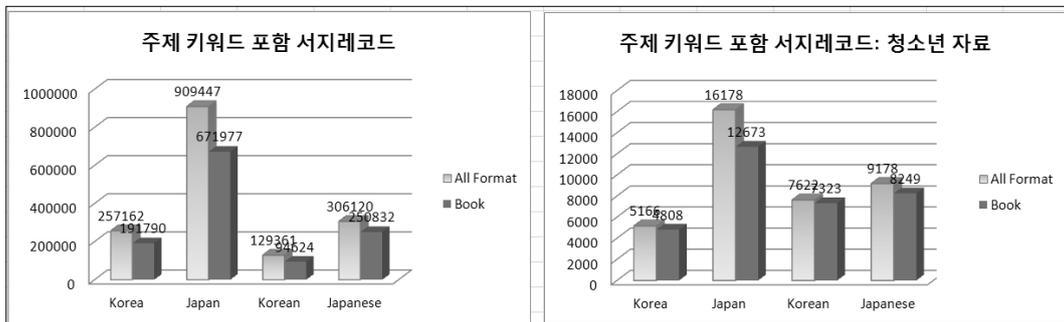
물론 한국과 직접 관련된 P'ansori, 일본과 직접 관련된 Origami, Aikido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명칭의 주제표목들은 그 안에 Korea, Korean, Japan, Japanese 등의 단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검색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주제 키워드들로 검색한 결과가

11) 윤정옥, "차세대 도서관 목록 사례의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pp.1-28.

12) 유영준,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서의 패킷 네비게이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2011), pp.13-30.

WorldCat에 들어있는 한국이나 일본 관련 주제를 다룬 모든 자료를 완전히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소 제한점이 되기는 하지만, 각 주제 관련 소장자료의 대략적 면모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1. 서지레코드의 매체별 분포



〈그림 1〉 WorldCat의 주제 키워드 포함 서지레코드 분포 (2012.1.8 데이터)

〈그림 1〉은 2012년 1월 8일 WorldCat을 Korea, Japan, Korean, 및 Japanese라는 네 개의 주제 키워드로 각각 검색한 결과의 서지레코드 총수 및 책의 서지레코드 수를 보여준다. 왼쪽 그래프는 각각의 주제 키워드를 포함하는 서지레코드 총수 및 책의 서지레코드 수를 보여주며, 오른쪽 그래프는 청소년 대상 자료 서지레코드 총수 및 책의 서지레코드 수를 보여준다.

WorldCat의 서지레코드의 매체 패킷은 책과 비도서(Non-Book)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비도서 자료는 논문(article), 저널/매거진, 비디오, 지도, 이미지, 음악, 시각자료, 아카이브 자료, 악보, 컴퓨터 파일, 백과사전 기사, 오디오북, 신문, 인터넷 자원,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물체(object), 키트, 게임, 장난감 등을 포함하며, 각 매체 유형 아래에서 더욱 세분되기도 한다. 책은 e-북, 학위논문, 마이크로폼, 연속갱신자원(Continually updated resources), 대형활자본, 브라우 점자본 등으로 세분된다.

〈표 1〉 WorldCat의 주제 키워드 포함 서지레코드의 매체별 분포

주제어	Korea		Japan		Korean		Japanese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책	191,790	74.6%	671,977	73.9%	94,624	73.1%	250,832	81.9%
비도서	65,372	25.4%	237,470	26.1%	34,737	26.9%	55,288	18.1%
합계	257,162	100%	909,447	100%	129,361	100%	306,120	100%

〈그림 1〉의 왼쪽 그래프와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WorldCat에서 주제 키워드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는 모두 257,162건으로 이들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191,790건(74.6%),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65,372건(25.4%)으로 나타났다.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는 모두 909,447건으로 이들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671,977건(73.9%),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237,470건(26.1%)으로 나타났다. WorldCat에는 Japan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서지레코드가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보다 3.5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WorldCat에서 형용사형 주제 키워드 Kore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는 모두 129,361건으로 이들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94,624건(73.1%),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34,737건(26.9%)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용사형 주제 키워드 Japanese를 포함한 서지레코드는 모두 306,120건으로 이들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250,832건(81.9%),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55,288건(18.1%)으로 나타났다. WorldCat에는 Japanese라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서지레코드가 Korean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서지레코드보다 2.4배 정도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표 2〉 WorldCat의 주제 키워드 포함 서지레코드의 매체별 분포: 청소년 자료

주제어 서지레코드	Korea		Japan		Korean		Japanese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책	4,808	93.1%	12,673	78.3%	7,323	96.1%	8,249	89.9%
비도서	358	6.9%	3,505	21.7%	299	3.9%	929	10.1%
합계	5,166	100%	16,178	100%	7,622	100%	9,178	100%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와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WorldCat에서 주제 키워드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 257,162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모두 5,166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자료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4,808건(93.1%),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358건(6.9%)으로 나타났다.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 909,447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16,178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청소년 대상 자료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12,673건(78.3%),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3,505건(21.7%)으로 나타났다. WorldCat에는 Japan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서지레코드가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보다 3.2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WorldCat에서 형용사형 주제 키워드 Kore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 129,361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책의 서지레코드는 7,622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모두 7,323건(96.1%)이고 절대 다수를 구성하였고,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단 299건(3.9%)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용사형 주제 키워드 Japanese를 포함한 서지레코드 306,120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9,178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청소년 대상 자료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8,249건(89.9%), 비도서 자료의 서지레코드는 929건(10.1%)으로 나타났다. WorldCat에는 Japanese라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서지레코드가 Korean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포함한 서지레코드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서지레코드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Kore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보다 Japan 혹은 Japanese를 포함한 서지레코드가 각각 3.5배와 2.4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에 관한 주제보다 일본에 관한 주제를 다룬 자료가 전 세계의 도서관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도는 김정현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가도서관 목록을 분석한 연구¹³⁾에서 이 도서관들의 일본 관련 장서가 한국 관련 장서의 2-3배 규모임을 밝힌 것과도 거의 일치한다고 하겠다.

둘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Kore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각각 74.6%와 73.1%가 포함되어 있고, 주제 키워드로 Japan이나 Japanese를 포함한 서지레코드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가 각각 73.1%와 81.9%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일본 관련 장서와 한국 관련 장서 사이에 책이라는 매체에 편중되어 있는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Kore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는 각각 2.0%와 5.9%가 포함되어 있고, 주제 키워드로 Japan이나 Japanese를 포함한 서지레코드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는 각각 1.8%와 3.0%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 관한 자료보다 한국에 관한 주제를 다룬 자료들의 청소년 대상 자료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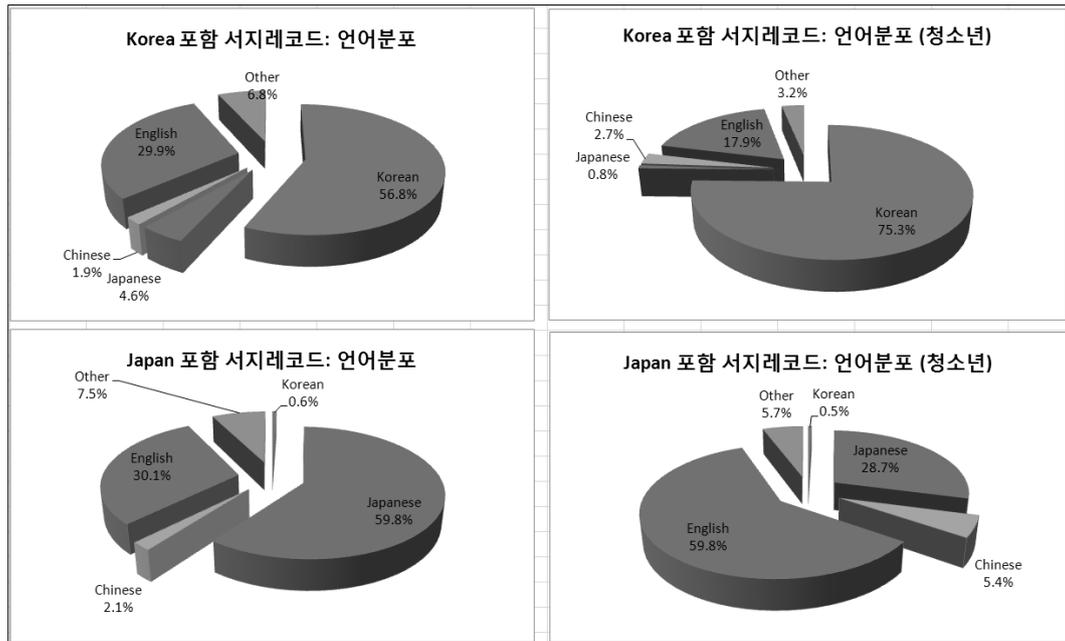
넷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Korean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각각 93.1%와 96.1%가 포함되어 있고, 주제 키워드로 Japan이나 Japanese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 가운데 책의 서지레코드는 각각 78.3%와 89.9%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룬 청소년 대상 자료는 절대적으로 책이라는 매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일본 관련 주제를 다룬 청소년 대상 자료는 비도서 자료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2. 서지레코드의 언어별 분포

<그림 2>와 <표 3>은 2012년 1월 8일 WorldCat에 주제 키워드 Korea와 Japan을 포함하는 서지레코드의 언어 분포 및 이 서지레코드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의 언어 분포를 보여준다. WorldCat의 언어 패킷은 MARC 서지레코드 포맷의 고정장(008) 필드 언어코드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검색된 서지레코드들도 매우 다양한 언어로 세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

13) 김정현, 전계논문, pp.159-160.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자료 구분만 채택하고 나머지 다른 언어들은 기타 그룹으로 통합하였다.



<그림 2> 주제어 Korea와 Japan 포함 서지레코드의 언어분포

<표 3> WorldCat의 주제 키워드 포함 서지레코드의 언어별 분포

주제어 서지레코드	전체				청소년 대상 자료			
	Korea		Japan		Korea		Japan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한국어	146,170	56.8%	5,117	0.6%	3,891	75.3%	76	0.5%
일본어	11,835	4.6%	543,714	59.8%	43	0.8%	4,644	28.7%
중국어	4,897	1.9%	19,244	2.1%	141	2.7%	872	5.4%
영어	76,856	29.9%	273,457	30.1%	927	17.9%	9,668	59.8%
기타	17,404	6.8%	67,915	7.5%	164	3.2%	918	5.7%
합계	257,162	100%	909,447	100%	5,166	100%	16,178	100%

주제 키워드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 257,162건의 절반 이상인 146,170건(56.8%)이 한국어로 되어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영어 자료는 76,856건으로 29.9%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어 자료는 11,835건(4.6%), 중국어 자료는 4,897건(1.9%), 그밖에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등 기타 언어들을 모두 합한 것은 17,404건(6.8%)에 지나지 않았다.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도 역시 전체 909,44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3,714건(59.8%)이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영어 자료는 273,457건으로 30.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5,117건(0.6%), 중국어 자료는 19,244건(2.1%), 기타 언어를 모두 합친 것은 67,915건(7.5%)이었다.

한편 주제 키워드 Korea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 5,166건 가운데 사분의 삼 이상인 3,891건(75.3%)이 한국어로 된 자료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영어 자료는 927건(17.9%)이었다. 일본어 자료는 43건(0.8%), 중국어 자료는 141건(2.7%), 기타 언어들을 모두 합한 것은 164건(3.2%)이었다.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 16,178건 가운데 일본어로 된 자료의 비율은 오히려 높지 않았다. 4,644건(28.7%)로서 영어 자료 9,668건(59.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어 자료는 76건(0.5%), 중국어 자료는 872건(5.4%), 기타 언어를 모두 합친 것은 918건(5.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지레코드의 언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Jap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의 언어별 분포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국가의 언어, 즉 한국어나 일본어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의 비중이 높으며, 그 분포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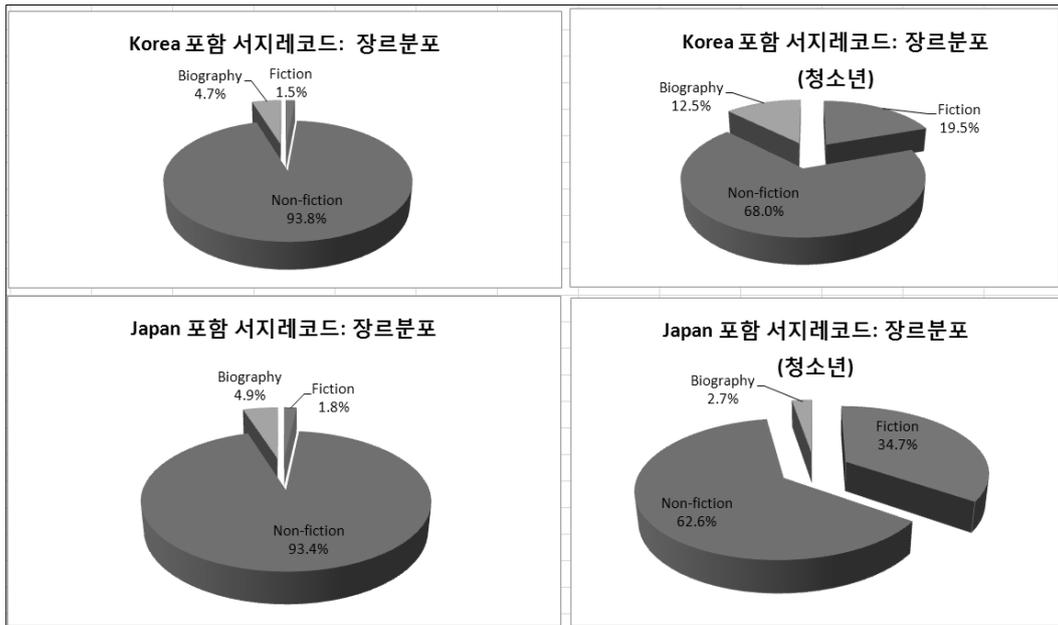
둘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Japan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의 언어별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룬 청소년 대상 자료는 절대적으로 한국어(75.3%)에 편중되어 있고, 그에 비해 일본 관련 주제를 다룬 청소년 대상 자료는 영어(59.8%)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절대 수치로도 일본 관련 청소년 대상 자료가 한국 관련 자료보다 세 배 정도 많았지만, 국제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로 된 일본 관련 자료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 관련 자료에 접하고자 하는 독자는 한국어를 알아야 하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독자라도 영어를 알면 접할 수 있는 일본 관련 자료가 많이 있고, 결국 일본에 관한 지식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전 세계 도서관들에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3. 서지레코드의 장르별 분포

〈그림 3〉과 〈표 4〉는 2012년 1월 10일 현재 WorldCat에 주제 키워드 Korea와 Japan을 포함하는 서지레코드의 언어 분포 및 이 서지레코드 가운데 청소년 대상 자료의 장르 분포를 보여준다. 앞서 1월 10일 WorldCat 통계에 근거한 〈표 2〉, 〈표 3〉보다 서지레코드 총수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장르 분포를 보면 주제 키워드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 269,864건 가운데 단 3,976건

(1.5%)만이 소설이며, 절대 다수인 253,186건(93.8%)이 비소설이며, 전기(Biography)는 12,702건(4.7%)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주제어 Korea와 Japan 포함 서지레코드의 장르분포

<표 4> WorldCat의 주제 키워드 포함 서지레코드의 장르별 분포(2012.1.10 데이터)

주제어	전체				청소년 대상 자료			
	Korea		Japan		Korea		Japan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소설	3,976	1.5%	16,870	1.8%	1,150	19.5%	5,771	34.7%
비소설	253,186	93.8%	892,607	93.4%	4,016	68.0%	10,407	62.6%
전기	12,702	4.7%	46,620	4.9%	736	12.5%	443	2.7%
합계	269,864	100%	956,097	100%	5,902	100%	16,621	100%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도 역시 전체 956,097건 가운데 절대 다수인 892,607건(93.4%)이 비소설 자료이며, 16,870건(1.8%)이 소설, 전기는 46,620건(4.9%)으로서 Korea를 포함한 서지레코드의 구성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제 키워드 Korea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 5,902건 가운데 비소설은 4,016건(68.0%), 소설은 1,150건(19.5%), 그리고 전기는 736건(12.5%)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자료는 비소설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소설과 전기의 비중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 16,662건 가운데 비소설은 10,407건(62.7%), 소설은 5,771건(34.7%), 그리고 전기는 443건(2.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Korea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대상 자료에서 전체 자료보다 비소설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제 키워드 Japan을 포함한 소설은 3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전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서지레코드의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WorldCat에는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Japan을 포함한 서지레코드의 장르별 분포는 둘 다 비소설 자료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고, 2% 미만의 소설, 5% 미만의 전기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둘째, 주제 키워드로 Korea나 Japan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자료의 서지레코드의 장르별 분포는 그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 관련 주제든 일본 관련 주제든 청소년 대상 자료는 공통적으로 전체보다 비소설의 비중이 삼분의 일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일본 관련 주제의 자료는 소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IV. WorldCat 서지레코드의 사례

목록에서 특정한 주제 관련 자료의 서지레코드의 분포 현황이 잠재적 지식 확산 가능성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우선 도서관에 특정한 주제 관련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온라인 목록은 한 서지레코드에서 다른 서지레코드 혹은 서지레코드들의 그룹으로 계속해서 링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이라는 지식 탐구의 시발점에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점점 더 많은 도서관 목록들이 서지레코드에 서평이나 태그, 개인 도서 리스트를 붙이고 공개하는 것과 같은 이용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지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지레코드에 특정한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불호와 같은 의견이나 지식이 반영되고,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기술 대상인 자료 혹은 그 분야 지식에 대한 관심도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위한 서평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해 온 김상호는 서평은 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평을 통해 독자들은 정보의 요구, 지적 호기심, 분별력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가 아닌 인터넷에서 얻는 서평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⁴⁾ 그는 또한 서평이란 작성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되므로,

14) 김상호, "신문 서평의 성격과 경향 분석: 2001년 동아, 한국,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

주제분야의 전문지식과 문장력은 물론 문헌비평자로서의 확고한 의식과 서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¹⁵⁾

그러나 차세대 도서관 목록들은 외부의 전문가 서평 데이터베이스 연계와 같은 확장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 참여 기능을 허용하여 비전문가인 이용자들의 서평 기고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의 이용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를 가진 이용자들의 관점을 서지레코드를 통해 접하고, 거기에서 특정한 자료 혹은 주제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권의 책의 서지레코드 사례를 통하여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WorldCat에서 일본계 미국인 작가 Yoko Kawashima Watkins가 지은 청소년용 소설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New York : Northrop, Lee & Shepherd, 1986. OCLC Number: 12286075)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WorldCat에서 이 책을 검색하면 10개의 판(editions)이 2012년 1월 현재 미국 내 838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서지레코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주제표목을 포함하고 있다:

Watkins, Yoko Kawashima -- Juvenile fiction.

Watkins, Yoko Kawashima -- Fiction.

Korea -- Fiction.

Japan -- Fiction.

World War, 1939-1945 -- Fiction.

이 책은 목록의 이용자가 Japan이란 단어만 주제 키워드로 치면 검색이 될 수 있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이란 주제에 관련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료 탐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강간, 한국인 남자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역사의 왜곡된 표현 등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인하여 2006년 매사추세츠 주 도버 서브 중학교의 6학년 영어 교과과목으로부터 제거"된 이래, TIME지(誌)가 2007년 'Banned Books Week'을 맞이하여 미국 학교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성적, 외설적 혹은 비종교적이라고 간주되는 열 권의 책을 선정한 것에 포함되었다.¹⁶⁾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왜곡, 일제 강점기의 만행에 대한 외면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도서관협회가 공개한 "Top 100 Banned/Challenged Books: 2000-2009"¹⁷⁾의 84위

권, 제3호(2002), pp.215-233.

15)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7권, 제1호(1994), pp.247-262.

16) TIME. *Too Controversial for Bookshelves?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by Yoko Kawashawa Watkins.* <http://www.time.com/time/specials/2007/article/0,28804,1667149_1667150_1667156,00.html> [cited 2012, 1, 28]

1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op 100 Banned/Challenged Books: 2000-2009.* <http://ala.org/advocacy/banned/frequentlychallenged/challengedbydecade/2000_2009> [cited 2012, 1, 28]

에 올라있을 정도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 책이 그렇게 논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WorldCat에 포함된 이 책의 서지레코드의 'Summary'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제이차 세계 대전말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서 일본으로 탈출하는 열한 살 소녀의 소설화된 자서전. 열한 살짜리 요코는 일본인이긴 했지만 일생동안 중국 국경 부근 한국 북쪽 지역에 살았다. 그러나 이차대전이 끝나고 조선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은 갑자기 엄청난 위협에 처하게 된다: 한국사람들이 자신의 모국땅의 통제를 원하고,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징벌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요코는 엄마, 여동생과 함께 평화로운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자신들의 아름다운 집을 떠나도록 강요된다. 그들의 여행은 끔찍하였다 -- 그리고 놀랄만 한 것이었다. 이것은 용기와 생존의 진정한 스토리이다.”¹⁸⁾

이러한 'Summary'는 대부분 출판사가 제공한 '확장된 콘텐츠'로서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지레코드에서 이 'Summary'를 읽는다면, 앞서 언급한 한일 간 역사 왜곡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정보보다는 출판사의 선전 문구에 가까운 내용 정보를 얻게 되며, 이 책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의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실제 이 책을 읽지 않는다 해도, 목록에서 이러한 서지레코드를 통해서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징벌, 일본인 소녀의 용기 등과 같이 편향적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1986년 간행본의 서지레코드 상 'Reviews'에는 이용자가 추가한 서평이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의 1994년 간행본(New York : Beech Tree Books, 1994. OCLC Number: 28547778)은 모두 3개 판이 2012년 1월 현재 미국 내 352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WorldCat의 이용자가 서평을 추가할 수 있는 'User contributed reviews'에서 연결된 GoodReads Reviews에는 모두 219건의 서평이 달려있다. 서평을 추가한 이용자 가운데 맨 위에 올라와 있는 Kajal Patel은 이 책이 "Spectacular"이라고 평하며 "안네 프랑크를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혹은 추천하는 책들의 리스트를 올려놓는 'User lists with this item'에는 3개의 목록이 달려 있다.

다른 예로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Linda Sue Park의 청소년용 소설 *When My Name Was Keoko* (New York : Clarion Books, ©2002. OCLC Number: 47092263)은 16개 판이 미국 내 1,675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다음 표목들을 포함하여 모두 20개의 주제표목을 갖고 있어, Korea 혹은 Japanese와 같은 단어를 주제 키워드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18) WorldCat.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 by Yoko Kawashima Watkins. 서지레코드. OCLC Number: 28547778. [cited 2012. 1. 28]

Korea -- History --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 Juvenile fiction.

Korea -- History --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 Fiction.

Family life -- Korea -- Fiction.

Military occupation -- Fiction.

Patriotism -- Fiction.

Courage -- Fiction.

한편 이 책의 서지레코드는 다음과 같이 우리 말로는 조금 더 길게 풀 수 있으나 영어로는 단 한 줄뿐인 'Summary'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과 이따금 두려움을 갖고,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억압하고자 위협하는, 제이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점점 더 포악해지는 한국 침략에 맞선다.”

이 책의 서지레코드에서 'Reviews'에는 WorldCat User Reviews가 1건, GoodReads Reviews가 9건 올라와 있다. 이 책의 저자인 Linda Sue Park은 *A Single Shard* (New York : Clarion Books, 2001)란 작품으로 2002년 뉴베리상을 수상하기도 한 저명작가이고 이 책 자체가 앞서의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보다 더 많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올려놓은 이용자의 수는 훨씬 적으며, 이 책의 'User lists with this item'에는 4개의 독서 목록이 달려 있다.

이 두 책의 서지레코드 사례는 도서관 목록, 특히 새로운 형태의 “발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WorldCat과 같은 목록들은 더 이상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지 및 소장정보와 같이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도구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어느 나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문에 가끔 보도되는 한국과 일본 간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들은 우선적으로는 그 학교의 도서관이 소장한 한국과 일본 관련 자료를 볼 것이고, 나아가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에 소장된 자료를 구해서 볼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면 타 지역이나 국가에서까지 상호대차를 요청해서 자료를 구해서 볼 것이다. 그럴 때 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자료의 풀(pool)은 학교도서관이라는 작은 경계를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넓은 세계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계 도서관에 소장된 일본 관련 자료가 한국 관련 자료보다 훨씬 많고, 국제 공용어로 할 수 있는 영어로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책뿐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소설만이 아니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과 같은 자료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일본 관련 자료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같은

편향된 지식을 주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부지불식 간에 그쪽으로 기울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여기서 예시한 경우처럼 목록에서 자료를 찾다가 서지레코드와 연계된 이용자 서평이 “spectacular”이라고 해서 선택한 책이 “한국인에 의한 일본인의 고초, 한국인의 잔혹함”을 그리고 있다면, 그 책을 읽은 이용자가 그런 견해에 반박하는 다른 자료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다면, “한국인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목록에서 찾은 한 자료의 서지레코드에서 주제, 이름 등으로 링크된 다른 자료들로 무한 연결이 가능한 동시에, 각 자료에 대한 일반인 이용자나 독자의 의견, 혹은 상업적 출판사의 홍보문구까지도 볼 수 있고, Amazon.com, Barnes&Noble과 같은 외부 서점의 웹사이트로도 연결이 되고 있다. 특히 WorldCat은 전 세계의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관 목록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 세계의 다른 도서관들로 연결되고 그들이 가진 자료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요청까지 할 수 있는 직접적 관문이 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지식 확산의 통로가 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WorldCat이라는 국제 규모의 종합목록을 사용하여 세계 도서관 내 한국과 일본 관련 자료의 서지레코드 분포를 살펴보고, 두 건의 서지레코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그 동안 도서관 자료 검색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목록을 지식 분포의 현황 및 확산의 잠재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전 세계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 자료 분포 현황의 일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도서관에 일본에 관한 주제를 다룬 자료가 한국에 관한 주제보다 적어도 2.5-3.55배 더 많이 소장되어 있다.

둘째, 소장 자료의 70% 이상은 대체로 책이고, 비소설 자료가 90% 이상으로 일본과 한국 관련 장서 사이에 매체와 장르 면 편중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셋째, 소장 자료의 2-3% 정도가 청소년 대상 자료였으나, 일본 관련 자료보다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룬 자료들의 청소년 대상 자료 비율이 약간 높았다.

넷째, 청소년 대상 자료 가운데 한국 관련 자료는 절대적으로 책에 편중되어 있고, 일본 관련 자료는 비도서 자료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다섯째, 전체 소장 자료의 언어는 각각 해당 국가의 언어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영어이며, 그 분포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 대상 자료에서 한국 관련 자료는 절대적으로 한국어에 편중되어 있고, 일본 관련 자료는 영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곱째, 청소년 대상 자료에서 비소설의 비중이 삼분의 일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일본 관련 주제의 자료는 소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료 분포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자료는 일본 관련 자료와 비교할 때 매체, 장르, 언어의 특성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총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소장 자료 총수가 적다는 것은 한국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읽을거리가 적으며, 따라서 한국에 관한 지식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특히 청소년 대상 자료 가운데 한국 관련 자료는 일본 관련 자료와 비교할 때 총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책에 편중되어 매체의 다양성이 적고, 영어라는 국제 언어의 사용도가 낮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비중이 낮다는 면에서 한국 관련 지식의 확산에 상대적으로 제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이 제공하는 다양한 패킷 가운데 단지 매체, 언어, 장르, 이용자 수준이라는 네 개 패킷만을 사용하여 자료 분포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발행연도와 주제 패킷을 사용하여 이러한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어쩌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양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가설적 시론이다. 목록 내 서지레코드의 분포 및 내용을 갖고, 도서관 장서의 분포 현황이 지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관련 지식자원의 분포를 예시하였지만, 어떤 주제로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상대적인 논쟁 관계에 있는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시도하면 흥미로운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이슬람교 관련 지식자원, 창조와 진화 관련 지식자원, 베트남과 중국 국경 분쟁 관련 지식자원의 분포 등 무수한 주제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전 세계 도서관 소장자료의 분포라는 형태로 나타난 지식자원 분포 현황은 도서관 밖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국제 사회에 한국 관련 지식 자체를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는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와 관련된 균형 있는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지식 확산 전략의 수립 및 추진 주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국가 자체나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일 수도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같은 국립도서관일 수도 있으며, 학술연구자들이거나 각종 민간 기관, 단체일 수도 있다. 그 주체가 누구이든 한국 관련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및 학술적 지식 확산을 위해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먼저 현재 전 세계 도서관에 장서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자원의 분포와 특성을 보다 심층적,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촘촘하게 연결된 국제적 정보망 안에서 도서관은 선별된 지식자원의 소장처이며, 온라인 목록은 탐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확산으로 이용자 서평 등 참여의 허용, 아마존 닷컴 같은 서점과의 직접 연결 등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용자들이 가상적인 도서관 경계의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도서관 목록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지식 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직된 정보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